

# 전주 4개 도서관, 문체부 공모 선정

### ‘길 위의 인문학’ 이후·건지도서관·‘지혜학교’ 서신·평화도서관 선정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 운영비 지원... 풍부한 인문독서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원과 (사)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4개 도서관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등 2개 공모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문화·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는 인후도서관과 건지도서관이 선정

됐으며, ‘지혜학교’ 공모사업에는 서신도서관과 평화도서관이 선정됐다. 이들 4개 시립도서관에는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된 인후도서관은 오는 6월부터 ‘화양영화(영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영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10회의 영화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건지도서관은 오는 7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전주, 휴머니즘을 넘어 생태주의로’를 주제로 한 생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신도서관과 평화도서관은 각각 오는 7월과 8월부터 ‘시민 교양을 위한 고전 여행’과 ‘한국 신화 여행’을 주제로 한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각각 12회씩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 게시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서관에서 보다 풍부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8명 모집

전주시가 청년과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8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 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전주 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7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참여자들은 △전주시청 문서고 기록물 정리사업 등 DB 구축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사업 등 서비스 지원 사업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70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9,8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मी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 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상황 점검

### 전주시교통정보센터 방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22일 전주시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박선전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설운영 현황 및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스마트 교차로 확대 및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교통정보센터 통합 모니터링·장애진단 시스템 구축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박 위원장은 “과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전주시가 교통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전주시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영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관풍각



### 내아



## 청소년 마음치유프로그램 ‘마음토닥’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트레스 관리 돕기 위해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전주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해 ‘마음치유프로그램(스트레스 관리): 마음토닥’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전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경험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자기만의 관리법을 찾아 심리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됐다. 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주남초등학교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로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전주양지중학교에서 청소년 63명을 대상으로 또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주남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참여 학생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배우면서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마음토닥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심리·정서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 외상과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주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교육 및 학업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 자문,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주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해 ‘마음치유프로그램(스트레스 관리): 마음토닥’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나서야”

### 전북환경운동연합,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강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는 구호를 주창했다.

이들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가 채택됨을 상기시켰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의결했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에 맞춰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 12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완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이는 지역의 생태환경 특성을 담은 생물다양성

비전과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서식지의 훼손과 손실이라고 했다. 풀씨행동연구소가 발표한 GIS를 통한 한국의 자연 손실 평가(1990~2020)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북의 산림 면적 중 93.17%가 사라졌다. 특히 완주와 진안, 임실에서의 서식지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더는 훼손과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우수한 생태자원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 지역의 보호구역은 관린법과 부처에서 관리하는 보호지역 33개 유형 중 22개 유형의 보호지역이 있다. 총 법정보호지역 면적은 2,347.85km로 대한민국 전체 보호지역

면적(39,565.19km) 대비 5.93%가 분포하고 있다. 아쉽게도 보호구역 확대 전략은 담겨 있지 않다고 전한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특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의 권한 및 협의권 이양 특례가 자연생태 환경의 질적, 양적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난개발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 계획 수립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전북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